

#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책

하일성\_야구전문해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 32권 아마오카 소하치(산강장판) 지음 | 이길진 역 | 솔출판사 | 각권 360쪽 | 값 각권 8,000원

모든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나 또한 무협지를 매우 즐겨 읽었으며 지금도 시간이 나면 가끔 읽는다. 그 중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내게 큰 인상을 남긴 책이었다. 총 32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기에 전편을 다 읽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권의 책 두께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역사소설로서의 재미가 시간가는 줄 모르는 재미를 선사해주었던 것이다.

나는 경희대 체대를 다니던 중 부모님의 반대를 뒤로하고 1969년 월남전에 참전했고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1970년에 귀국을 하였다. 월남전에 지원하면서도 각오한 일이었지만 그곳의 생활은 내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런 생활들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 내게 활력소가 되었던 것은 이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 당시 나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읽는 재미로 군대생활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군인에게 독서란 얼마나 사치스런 일인가. 그런데도 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읽기 위해 군대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시간만을 기다렸다.

내가 알기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독특한 과정을 거쳐 독자들에게 다가왔다. 작가 아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967년까지 무려 17년이나 일본의 주니치를 비롯 3개 신문에 동시 연재했다는 것이다. 17년간 연재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독자의 호응을 뺏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철저한 역사적 고증에 기초해 독자의 의표를 찌르는 절묘한 구성과 자유자재의 상상력이 중흥으로 엮여 있어 한 번 잡으면 손을 뗄 수 없는 흡인력을 보인다. 게다가 분열과 싸움으로 뒤덮인 센고쿠시대를 마침내 평정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여러 인간상과 역사적 조건들은 우리 역사와 그리 무관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묘한 카

타르시스를 느끼며 책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글에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토록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 자주 놀라곤 했다. 게다가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히데요시의 대립구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을 읽어 가는 재미는 삼국지의 그것에 버금간다고 나는 느꼈다. 시대의 명장 히데요시는 과감한 결단과 배짱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용병술이 뛰어났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결정적인 계기를 기다리는 인내를 그의 무기로 삼았다. 결국 그가 일본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선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 얻은 것이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그의 인내라는 두 글자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성격이 급했던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인내라는 것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야구도 사실 이와 같은 구도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경기를 해설할 때도 이 책을 떠올린다. 감독들의 지략과 인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너무도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32권의 책을 모두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마 삼국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